



**반계유적지**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안면 반계로 97-68

조선후기 실학자를 대표하는 반계유형원이 머물던 반계서당이 있는 곳이다. 유형원은 이곳에서 19년 동안 거주하며 연구에 몰두해 26권의 '반계수록'을 집필하였다. 그의 호 '반계(磻溪)'는 이곳 우반동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. 마을 이름이 원래는 우반동(遇磻洞)이었으나 일제강점기때 우동리로 개편되었다. 그는 정치·경제·지리·군사·언어·문학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수십 권의 저서를 더 남겼다. 균등한 토지 소유의 중요성을 강변하는 균전제라는 토지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. 그러나 반계수록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. 반계서당 아래로 펼쳐진 풍광은 400년 동안 많이 변했겠지만, 그의 실학사상과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다.